

# 남원육아종합지원센터 '자람뜰' 개관

### 시, 영유아 놀이와 교육·체험 기회 등 자연친화 환경 제공

남원시는 30일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와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보육정보와 상담서비스 지원, 어린이집에는 육아환경을 크게 개선해 줄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람뜰'(이하 센터)의 개관식을 가

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경식 시장 및 보육 관련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센터는 2019년 보건복지부 건립 승인 및 국비지원(10억)을 시작으로 조산동 부지에 총 사업비 92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1,624.57㎡,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했다.

주요시설은 △1층: 장난감도서관, 영유아놀이체험실1, 요리실 △2층: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영유아놀이체험실2, 상담실, 시간제보육실 △3층: 사무실 등을 갖추었으며, 중정에는 센터를 방문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포토존으로 구성하고, 실내에는 친환경 소재인 공기정화식물을 곳곳에 식재해 영유아에게 자연 친화 환경을 제공하였다.

센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놀이체험실과 프로그램은 남원시 거주 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 거주자도 이용이 가능하고, 영유아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과 이용방법 및 주요 프로그램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경식 시장은 "센터 '자람뜰'이 신뢰받는 어린이집과 행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 높은 교육과 놀이공간 제공을 통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원시가 노력해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30일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람뜰'(이하 센터)의 개관식에 최경식 시장 및 보육 관련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순창군은 지난 29일 최영일 군수, 신정기 의장, 군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흥·쌍치 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준공식을 가졌다.

## 순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준공

### 북흥·쌍치 권역 준공식 가져... 농민 애로사항 해결

순창군이 북흥 쌍치 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문을 열어 5대 군정 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에 한 발자국 더 육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 29일 북흥 쌍치 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준공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신정기 의장, 군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준공식을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북흥 쌍치 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순창군 북흥면 가인로 500에 위치해 있으며, 총 사업비 1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부지 3,988㎡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북흥 쌍치 권역 임대사업소는 농업용 굴착기 및 트랙터, 관리기 등 39기 중 14대의 농업용 기계를 보유해 영농철 수요가 높은 다량의 농기계를 보유함에 따라 주민들의 영농 경영비 감소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된 임대사업소는 지리적으로 기존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거

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던 쌍치와 북흥, 구림 권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최영일 순창군수가 애정을 갖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흥·쌍치 권역 임대사업소 준공에 따라 군민과 약속을 지킨 민선 8기 공약사업 달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다음달 3일부터 북흥·쌍치 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농기계 임대료를 희망하는 순창군민들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군은 영농철로 농기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임대사업소 준공으로 쌍치와 북흥, 구림 지역 주민들의 영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다"면서, "농기계 임대료 영농 경영비를 다소나마 줄여 실제 돈을 버는 농업 구조로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디지털 관광주민증 받으면, 임실관광 기쁨두배

### 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 선정

내달 1일부터는 임실군을 방문하는 전국 모든 관광객들은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관내 음식점과 카페, 숙박과 체험시설 이용 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실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4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

구 확대 및 체류시간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 중 기존 15개 참여 지자체를 제외한 7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1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실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참여업체들에 한해서는 관내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한 지역업체는 모두 26곳으로, 수시로 모집 중이며, 갈수록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업체들이 주는 혜택은 다양하다. 관광지의 경우 임실치즈 역사문화관의 경우 방문 시 1일 10명에 한해 기념품을 증정하고, 최근 핫한 관광지인 급부상한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 입장료도 1,000원 할인해 준다. 쇼핑과 숙박의 경우 임실로컬푸드직매장 방문 고객 중 6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요구르트(150ml)를 제공하고, 임실레드팜 등은 구매 상품을 5% 할인해 준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대규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공적 실시

순창군이 30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수습·복구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전과 같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으며, 순창군청 12개

협업부서와 17개 유관기관 단체 340여 명 등이 참여해 실제상황을 방불케했다. 특히 토론 훈련과 실제 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원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해 훈련의 현실감을 높였다.토론 훈련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직접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8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재난대책

본부를 가동하여 훈련을 총괄 지휘했다. 또한 김영식 순창부군수가 현장에서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 50대, 17개 유관기관 340명을 참여시켜 현장 수습과 복구작업 등 현장훈련을 병행했다.

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2회에 걸친 전문 컨설팅과 기획 회의를 거쳐 최종 훈련 내용을 확정하는 등 훈련 내용에 내실을 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그린 파크골프장' 개장식 개최

남원시는 30일, 주생면 중동리 요천생태습지공원 내 새롭게 조성된 '남원그린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이정민 부의장 및 파크골프 동호인,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남원시에서는 늘어난 주민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파크골프 인프라가 부족해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되며, 요천생태습지공원 내 조성된 '남원그린 파크골프장'은 사업비 10억원(국비 3억, 시비 7억)을 투입해 약 1만8,000㎡ 면적에 18홀 규모로 조성,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휴게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향유 시설을 무료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소통과 만남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시장은 "앞으로도 체육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순창군이 11개 읍면과 협력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연초부터 체납액에 대한 적극 징수 의지를 밝힌 순창군은 2분기 체납액 징수 목표를 5억 6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군과 읍면이 협력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11억6,100만원, 읍면별로 순창읍 4억4,600만원(38%), 북흥면 2억2,600만원(20%), 금파면 1억4,600만원(13%) 구림면 7,700만원(7%), 인계면 7,100만원(6%), 풍산면 6,500만원(6%), 쌍치면 6,000만원(5%), 동계면 2,000만원(2%), 적성면 1,900만원(2%), 팔덕면 1,600만원(1%), 유등면 900만원(1%) 순이다. 군은 장기간 고질적인 체납 건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급여, 신용카드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임실군이 농작업,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나섰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쯤쯤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는데,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제한적이고 서식지 제거를 위한 방제에는 한계가 있기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일에서 14일 이내 고열, 근육통, 소화기 증상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895명의 환자 중 355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18.7%로 높지만, 아직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만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방법은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추기 등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